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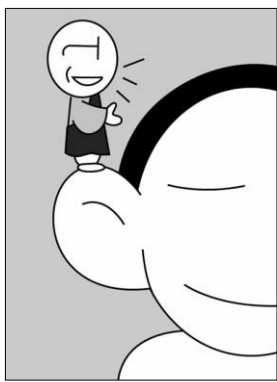
독자가 쓰는 2004 지상캠페인 한국 불교 달라지야 한다

### 알아듣기 쉬운 법문이 필요하다

우리는 간간히 선 법문을 듣는다. 계승을 읊고 주장자를 쳐들어 "이것이 법에 합당한 것이다. 알겠는가?" 하면서 선의 종지를 부득이 드러낸다. 하지만 이내 "모르겠습니다" 해도 그것으로 법문은 끝이다.

과연 대중들이 법문을 해야 할까? 차였는지, 다른 공금한 점이 없는지, 질문하는 이를 더듬어 어떤 촉매를 줄 것인지 하는 피드백 과정이 없다. 질문하면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편지(?)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이 공부의 전부라 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묻고 답하고 함께 끝까지 가지며 추종하는 태도에 있을 것이다. 서로 그러한 담선(談禪)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혹 질문을 통해 제 3자가 어부지리를 얻는다 해도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 모호한 '선문답'은 당혹감만 줘 "출가와 재가 서로 존중했으면"

그러나 한 국불교에 그러한 답선 분 위기는 드물다. 공부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법에 대한 논의에 서로 열려 있어야 한다. 언젠가 천도재에 대해 해안이 밝은 노스님에게 여쭙었다. "스님 천도재를 왜 합니까? 천도가 되긴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사람을 빌려 산 사람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노스님의 답은 본말이 전도된 듯한 현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었다. 왜 이런 방편은 하도 성성한 선방에서는

그 가치를 잃고, 선원만 떠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지 모를 일이다.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는 것일까. 49재가 많은 사찰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것 같은 현실이다. 그러나 나는 방편이라는 천도재가 주가 된 듯한 현실을 볼때 점점 한국불교를 알아먹고 있는 이제 사찰은 좀 더 간결해지고 긴박해져야 한다. 이런 방편은 길게 봐서 불교를 남감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부대중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부대중 모두가 일체를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생을 포함한 일체는 이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체의 평등을 가르치는 불교에서 적어도 지금은 어렵지는 소리다. 공경하는 자와 공경당하는 자가 확연히 구분된다.

더 나아가 출가를 성취하기는 드물

경하다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존경은 우리나라는 것이다.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솔직히 인내하며 들어야 하는 스님들의 반말과 하대가 싫다. 하지만 반말과 하대 또한 자성이 없기에 늘 나쁘지만도 않다. 그것은 하나의 친분의 척도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처음 대면했는데도 대뜸 날아드는 스님들의 반말과 하대에는 거부감이 든다.

출가와 재가는 서로가 존중해야 하는 관계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사부대중이 존재할 수 있다.

■ 손무수(부산 해운대구 우동)

###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문화재 되찾기 목소리 고조

## “제 자리로...” “안돼...”

### 봉인사 등 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계기 반환 추진 “관리문제로 곤란·현 위치서 해체 보수 계획”

경복궁 뜰에 있는 많은 국보·보물급 석조문화재들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체와 조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기회에 원 소재지로 돌려달라”는 요구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가 보물 제928호 봉인사부도암사리탑 반환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도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봉인사부도암사리탑(이하 사리탑)은 '구한 유전(流轉)'으로 잘 알려진 탑. 광해군11년(1619년) 왕세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해 세워진 이 탑은 1927년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일본인 소장자 이와다센소 씨의 유언에 따라 1987년 예야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으로 반환된 데는 1979년 봉인사를 재건하고 이와다센소 씨에게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했던 한길보 법사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리탑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온전하게 반환했던 사리와 사리탑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에 따르면 정부는 1987년 사리탑과 사리장엄구를 보물 제928호에 지정하고 박물관이 소장해 하는 한편, 사리는 신앙의 대상이라 해서 사리와 사리탑을 담은 유리병만 봉인사에 돌려줬다.

그 후 봉인사는 문민정부 시절에도 반환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은 봉인사의 관리능력이 의심스러우

며, 반환하게 되면 선례가 돼 다른 문화재들까지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반환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2년여 전부터 매달 초하루엔 신도들과 함께 사리탑을 찾아 탑돌이를 하고 있는 적경 스님은 “사리와 사리탑이 따로 있어야 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사리탑은 봉인사의 역사인 만큼 반드시 봉인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봉인사의 관리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한편 남양주시와 함께 반환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봉인사 측의 반환 요구에 대해 박물관은 “이와다센소 씨는 봉인사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기증했다”며 “현 봉인사가 옛 봉인사 절터에 세운 절이라 해서 사리탑 조성 당시의 소유



봉인사 신도들은 매달 음력 초하루엔 경복궁 뜰에 있는 보물 제928호 봉인사부도암사리탑을 찾아 탑돌이를 하며 이 탑이 봉인사로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권이 그대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에 대한 법적 해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10여년 동안 원주문화재 반환운동을 벌여온 원주시 또한 최근 국보 제101호 법천사지왕국사현묘탑, 보물 제190호 거문사지왕국사사승묘탑 등 원주에서 가져간 문화재에 대한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환 요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문에서 원주시는 “문화재란 제자리에 원형 보존될 때 가치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의 정신적 뿌리이기도 한 해당 문화재들은 마땅히 원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해당 문화재들이 반환될 경우 원주시는 보존·관리를 위해 약 15억원을 들여 거문사지에 관리소를 설치하고 관리원을 상주시키는 방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문화재들을 내년 3~7월 용산 박물관으로 이전하되 훼손 상태가 심각해 이전 시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봉인사부도암사리탑과 법천사지왕국사현묘탑은 이전을 유보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선 해체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종조원정기념관’ 개관

#### 총지종, 내달1일 총지사

총지종은 ‘종조원정기념관’ 개관식을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총지사 2층에 기념관에서 갖는다.

‘종조원정기념관’은 총지종 창종주인 원정 대종사의 유품과 서적, 불경 등을 전시, 종지종풍 선양과 종단내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전시되는 주요 유품은 창종 당시 사진을 비롯해 ‘법불

교’ 편찬원고 ‘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불교 한국대표 방일보고서’ ‘사중수법음 사색간’ ‘사중수법음 사색법’ ‘원경(圓鏡)’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阿字)와 육합상(六合相)’ 등이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대종사의 사상과 교상을 연구하기 위해 종학연구실을 설립하는 한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연구문을 공모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기획부장 법안 스님

#### 규정부장 효성 스님

#### 태고종 총무원 인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11월 10일자로 총무원 부장에 대한 일부 개각인사를 단행, 기획부장에 법안 스님(논산 안심정사 주지), 규정부장에 효성 스님(중앙

종회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또 신설된 문화부장에는 특목 스님(前 재경부장), 재경부장에는 경담 스님(前 규정부장)을 전보했다.

태고종은 “3년간 추진해온 각종 불사들이 종도들의 참여정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마무리해 종단이 한국불교계를 선도하는 선진종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 진옥 스님 내년 초파일 목표

2005년 부처님오신날 달라이라마 방한이 성사될까?

최근 여주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예방해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 의사를 밝히자 법장 스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도 11월 16일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6대 국회에서 대정 부실론을 통해, 방한 허용에 대한 확답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였다. 김 의원은 또 달라이라마 방한은 ‘문화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법장 스님도 당시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인연을 소개하며, 방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총무원 한 관제자는 “종단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방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세우지 않았다”면서 “최근 등북 공정 등으로 사회 전반에 중국에 대한 반감이 흐르고 있어 이전과 상황이 달라진 것만큼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 고침

본지 499호 부록 ‘포교사 고시 실천 모의고사’ 3회분 29번 문항이 방위와 자물의 잘못 연결로 인해 ①②③④ 모두가 정답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방대학원대학교 인가 태고종 ‘내년 3월 개교’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동방대학원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개교인가를 받았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교육인적자원부가 11월 5일 동방대학원대학교의 개교를 허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대학원과정인 동방대학원대학교를 개교할 수 있게 됐다.

태고종은 지난해 3월 학교법인 동방대학교의 운영권을 획득해 기존의 태고종 중앙불교회관과 동방불교대학 학사를 개조하는 공사를 마쳤다.

또한 종교부지를 학교부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동방대학원대학교 개교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돼 왔다.

박봉영 기자

## 불기2548년 불교성지순례회원을 위한 특별기획상품

#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대한항공 특별전세기 순항 - 양국 정부 순항허가 조건 -

**\*불교성지순례**  
요금 ₩1,680,000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양곤-인천

**\*문화탐방**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GOLF 여행** ₩1,520,000  
인천-양곤-파간-양곤-인천

미얀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동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HOTEL TRADERS OR NIKKO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공-웨이코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이파고다, 해산도파고다,이러와다강 석양관상후 호텔투숙	중 조 석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HOTEL ARTHAWKA OR THARABAR GATE 아침공양후 만달레이 이동 왕왕인디라,마하간디용수동원,만달레이힐 순례 전용 유람선으로 민군 항할, 민군 대담, 민군중 순례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8:50 10:15	HOTEL MANDALAY HILL RESORT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 포가다다복사사, 사왕지파고다 개어파파고다(관신사)의 천경(정대불사 불형) 아용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5일	양곤	전용차량	전일	HOTEL TRADERS OR NIKKO 아침공양후 해사관파고다,마하시수도원,해도 파 고다 순례, 아용산기념탑 견학, 가사 불사 및 법회 (불교대학 대법당), 저녁공양후 양곤 출발	중 조 석
제06일	인천	KE9668	07:40	HOTEL 기념박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성 불 하심시 요 * HOTEL	중 조 석

- \*특전행사**
1. 업장소멸 정대불사 (부처님진신사리, 사리불, 목련존자)
  2. 탁발공양(희망자)
  3. 수도원 위빠사나 체험

- \*출발일(2004년)**
- 1차: 12월 5일~12월 10일(5박6일)
  - 2차: 12월 9일~12월 14일(5박6일)
  - 3차: 12월 13일~12월 18일(5박6일)
  - 4차: 12월 17일~12월 22일(5박6일)

미얀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자	출발/도착	교동편	시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9667	17:00 18:55 22:30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2일	양곤 파간	HK909	06:30 07:50	HOTEL TRADERS OR NIKKO 호텔 조식후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공-웨이코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이파고다, 해산도파고다,이러와다강 석양관상후 호텔투숙	중 조 석
제03일	파간 해호	국내선	09:15 09:45	HOTEL ARTHAWKA OR THARABAR GATE 호텔 조식후 파간 이동 2천불유리 공경, 포가다다 파고다, 차와라지 파고다, 개어파고다, 아용산 마켓 견학 석식후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4일	해호 양곤	국내선	10:05 11:35	HOTEL HUPPIN RESORT 호텔 조식후 양곤 이동 2천불유리 공경, 포가다다 파고다, 차와라지 파고다, 개어파고다, 아용산 마켓 견학 석식후 호텔 투숙	중 조 석
제05일	양곤	전용차량	전일	HOTEL TRADERS OR NIKKO 호텔 조식 후 미얀마 불교 상징 해사관 파고다 양용산 추모탑 견학, 마하시 수도원 관광	중 조 석
제06일	인천	KE9668	07:40	HOTEL 기념박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중 조 석



**한진관광** 이기범 과장  
TEL. 02-726-5788  
**바라밀투어** 차명철 부장  
TEL. 02-3452-8010  
**불교방송** 권병훈 차장  
TEL. 02-705-5303

주관 안진관광

공동 판매여행사 / 대승항공 730-0202 실크로드 720-9600 헤초여행 733-3900

후원 대한항공 불교방송